

2019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초록

1

회의개요

- 일시: 2019. 05. 22.(수), 15:00-19:00
-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 출석이사: 재적이사 26명 중 24명 참석
 - 회장(의장): 유준상
 - 이 사: 강수림, 주봉노, 김판규, 김충희, 이재호, 정진우, 박종열, 이근우, 김용성, 안병태, 천경파, 민기례, 김종례, 송영언, 이성욱, 김한섭, 김한울, 조대용, 엄용대, 임진영, 방은준, 전지훈, 최고봉
- 상정안건
 - 전차회의록 초록
 1. 2019년도 제4차 이사회
 - 보고사항
 1.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
 2. 임원 선임
 3. 2019년도 대회 개최 결과
 4. 2019년도 3월~4월 국가대표 훈련 결과
 5. 회장 업무 인계위원회 결과 보고
 - 심의사항
 1.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정
 2. 일부 전문위원회 규정 개정
 3. 전문위원회 설치
 4.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동의
 5.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등록선수 활동 승인
 6. 윈드서핑·카이트보딩 전국규모연맹체 설치 검토
 - 기타사항

2

회장님 인사말

우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첫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간여유가 있어서 이사님들의 각자 인사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일단은 여러 가지 첫 이사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지난 선거 이후에 딱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아닌 5년 10년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그 요트협회 회장으로서 된 이상 저의 주어진 남은 기간에 제 임무를 다하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산전수전 겪으면서 사업도 하고 또한 정치 생활도 했고 그리고 생활을 다 해봤지만 그냥 중요 하다 자기 주어진 임무를 다 마치고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 번 이사회 때 좀 부분적으로 이사를 보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엄용대 이사님도 계셨지만 대의원총회에서 1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데서 14명이 이사의 해임을 해야 된다. 임원에 대한 해임을 하고 새 회장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 적잖게 당황했지만 어쨌든 대의원 총회에서 15명이 만장일치로 의결 해주고 그래서 임원을 이제 해임이 다 됐는데 그 해임된 분을 한분도 여기에 다시 이사로 초대를 안 한 이유는 일단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을 했으면 어느 분은 다시 선임하고 어느 분은 또 해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임진영 이사는 당시에 사표를 써 사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소통과 혁신 그리고 화합 이라는 이런 세 키워드를 가지고 이 협회를 운영해 갈까 합니다. 그러나 흔히 자주하는 얘기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오랫동안 갈려면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뿐 입니까. 꿈은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협회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 전 까지만 해도 회장이 공석이 되어서 직무대행 회장이 바뀌고 해서 아주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 협회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 선임 된 이사님들께서 정말 힘을 모아준다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천천히 차근차근 해결이 되고 뭔가 우리가 목표하는 2020년 2024년 동경과 파리 올림픽이 있어서의 소위 요트의 종목이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으로 스포츠 대표 종목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불가능하지 않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3 논의결과(주요내용)

I. 전차회의록 초록

1. 2019년도 제4차 이사회(2019.04.11.) : 원안 접수

II. 보고사항

1.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 : 원안 접수

1) 주요내용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2심) 결과

- 항 소 인(피고): 대한체육회
- 피항소인(원고): 유준상
- 항소일: 2018.12.26.
- 항소취지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판 결 (2019.05.02.)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임원 선임 : 원안 접수

1) 주요내용

선임 임원 명단

연번	직위	성명	소속/직위	비고
1	이사	강수림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2	이사	주봉노	위니스건설 회장	
3	이사	김판규	세종대 석좌교수	前해군참모차장
4	이사	김총희	부안변산요트마리나대표	
5	이사	이재호	극동대 교수	공모임원
6	이사	정진우	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공모임원
7	이사	박종열	가천대 명예교수	
8	이사	이근우	인천대 상임감사	
9	이사	이미애	동부산대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공모임원, 여성
10	이사	김용성	(주)에너지대표	공모임원
11	이사	안병태	군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공모임원
12	이사	천경과	일본 NKN (주)대표이사	공모임원

13	이사	민기례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	여성
14	이사	김종례	한국BBS중앙연맹 부총재	공모임원
15	이사	송영언	전)스포츠동아사장	
16	이사	이성욱	(주)이에스여주 회장	
17	이사	김한섭	(주)용진 대표이사	
18	이사	김한울	(주)진아 총괄 부장	
19	이사	조대용	울산대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	울산협회전무
20	이사	엄용대	대구영남매일 국장	경북협회수석부회장
21	이사	임진영	여수시요트협회 전무	
22	이사	방은준	한국오피미스트협회 이사	여성
23	이사	이재형	한국해양대 해양체육과 교수	
24	이사	전지훈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25	이사	최고봉	천하건설(주) 이사	
26	행정감사	김순교	엔스엔티(주) 대표이사	강원도요트협회장
27	회계감사	이찬호	신아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3. 2019년도 대회 개최 결과 : 원안 접수

1) 주요내용

□ 제18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 기간: 2019. 3. 28.(목)~4. 1.(월), 5일간
- 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 주최: 해양경찰청, 대한요트협회
- 주관: 대한요트협회, 경상북도요트협회
- 후원: 포항시, 대한체육회
- 참가규모: 10개 클래스 274명 (선수217명, 경기운영/심판57명)
- 입상자 현황: 30개부, 83명(1위37명, 2위25명, 3위21명)

□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요트경기

- 기간: 2019. 4. 26.(금)~28.(일), 3일간
- 장소: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요트장
- 주최: 대한체육회, 충청북도
- 주관: 충청북도체육회, 대한요트협회, 충청북도요트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참가규모: 4개 클래스 60명 (선수34명, 경기운영/심판26명)
- 입상자 현황: 10개부, 23명(1위9명, 2위8명, 3위6명)
- 시도종합점수: 1위 서울(230점), 2위 경북(180점), 3위 제주(180점)

□ (창원시와 함께하는)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 기간: 2019. 5. 9.(금)~13.(일), 5일간
- 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 주최: 대한민국 해군, 대한요트협회
- 주관: 해군사관학교, 경상남도요트협회, 창원시요트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창원시, 대한체육회
- 참가규모: 10개 클래스 253명 (선수204명, 경기운영/심판49명)
- 입상자 현황: 30개부, 93명(1위37명, 2위31명, 3위25명)

4. 2019년도 3월~4월 국가대표 훈련 결과 : 원안 접수

1) 주요내용

□ 2019년 3월 국가대표 훈련 개요

- 기간: 2019. 3. 13. - 3. 27. (15일간)
- 장소: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 참가인원: 총 26명 (감독1, 코치3, 트레이너 1, 전담팀 1, 선수 20)

□ 2019년 4월 국가대표 훈련 개요

- 기간: 2019. 4. 7. - 4. 30. (24일간)
- 장소: 진천선수촌,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 참가인원: 총 24명 (감독1, 코치2, 트레이너 1, 전담팀 1, 선수 19)

□ 2019년 1차 국외전지훈련 개요

- 기간: 2019. 4. 3. - 4. 28. (26일간)
- 장소: 스페인(팔마), 프랑스(이에르)
- 참가인원: 총 3명 (송명근 코치, 이태훈, 손지원 선수)
- 훈련 중 참가 대회: RS:X유럽선수권대회(2019. 4. 7. - 4. 13.)

세부종목	성명	소속	순위
RS:X (남)	이태훈	인천광역시체육회	27/104
	손지원	강릉시청	45/104

5. 회장 업무 인계위원회 결과 보고 : 원안 접수

1) 주요내용

□ 인계위원회 장인태 위원장의 활동 결과 보고 발표

인계위원회 위원장 장인태 입니다. 대한요트협회 회장님께 인계위원회는 한국 대한요트협회의 신임 회장의 성공적인 업무임기를 위해서 제4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 활동 하였으니 이 협회에 사무처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협회의 구성과 조직 활동의 평온함을 정리하고 아울러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과약하여 본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이사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총 2019년 4월19일부터 5월19일까지 한 달간 활동을 하였으며 뜻이 부러지고 물이 새는 요트를 다시 재건한다는 심정으로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난날에 과오와 실수 잘못을 털어내고 새롭게 되어가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신임 회장님의 업무인계 초점을 두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협회에 몸담고 계셨던 이사님들은 물론 새로 임명되신 이사님들에게도 저희 협회 현황을 파악하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의욕이 컸습니다만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 달로 한정 돼 있고 또한 중간에 제 20회 해군참모총장배전국요트대회가 있어서 위원들이 시간에 쫓겨 회의를 진행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이 부분은 유인물 참조하는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협회 내에서의 유기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 미비로 인해 자금난이 더해져서 일부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동기유발 및 사기저하를 불러왔습니다. 임금이 이격되는 직원과의 사이에 응화와 단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협회의 재정 자립이 우선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재정 자립화 방안으로는 기금 출연금으로 발생하는 과실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의 전환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요트수에 증가에 대비해서 요트정비면허개선 요트정비학교 설립 협회자체 마리나 시설 건립 자체 계류시설 확보 자체 요트 경기장확보 자체 정비소 설립이 정비소 승인제 실시 협회장배 대회신설 요트서적의 번역 및 발간 사실 영국에 경우는 이런 책을 많이 발간해가지고 판매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요트면허 발급권의 회복 요트면허 차등제 운영 등 자체운영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정자립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도 서울에 요트를 이용한 이 강 좋은 큰 강이 있는 점을 활용하여 한강의 요트레이스 요트체험 요트대여 등의 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것 같습니다. 또 한강에서 출발하여 서해를 걸쳐 제주도까지 갔다 올 수 있는 투어코스를 신설하여 대중에게

요트를 알리고 이를 협회의 수익창출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연구비 등을 해양수산부나 문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요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도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전임 회장 분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함으로 인해서 협회는 중심을 잃고 운영 되어왔습니다. 무려 그동안에 네 명이나 되는 회장님이 중도에 사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임 회장의 취임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업무에 공백이 더 깊어진 상태입니다. 직무관련 불법 부당한 업무집행 지시거부 직무태만의 등의 사안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회부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회의 사무 또한 비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입니다.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 및 사무처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문제 또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트 문화와 활성화 측면에서 다도이며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요트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는 데 계류시설의 부족, 일부 마리아나의 시설의 경우 주민과의 불화, 항로의 정비미비로 인한 일배와의 항로 겹침, 불법어로장비로 인해 연안운행 위험, 3억 이상의 요트 구입 시 특별 부과세가 부과되어 요트구입에 소극화, 요트대여업 관련 소형선박에 대한 규제 존재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마리아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트대여업 즉 마리아나업 기준을 5톤에서 2톤으로 낮추어 소형요트의 경우에도 요트 대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만은 여전히 부정적인 규제로 남아 있어서 요트선진국의 경우 이와 같은 감안하면 좀 더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선박에 중과세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가총액 1억의 경우 지방세가 중과세로 되었으나 현재는 시가표준 3억의 경우까지 상향조치를 하였음에도 요트의 특성상 3억을 호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트구입 후 유지비의 부담 때문에 구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요트문화 대중화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치고 있고. 중과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 취득세는 5배, 재산세는 17배를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즉 3억의 요트의 경우 현재는 재산세만 매해 1천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 법제개선 필요 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 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요트는 비인기 종목으로 해가 갈수록 선

수층이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회 등에서 요트관련 선수육성을 도외시 하는 이유가 가장 큼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요트관련 대학모집정원의 확대, 관련학과의 설립, 요트관련 일자리의 창출 등에 힘써 선수층을 두텁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올림픽 등 경기에 있어, 경기방식 및 체제 등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향후 메달확보를 위한 대회 경기력 향상을 도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요트 면허 및 교육과 관련해서 대한요트협회가 면허시험 및 면허 발급 업무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주관 중입니다. 타 협회의 경우, 면허의 발급 등에 대해서 자체수입으로 협회가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트조종면허의 경우 대한요트협회가 면허시험 등 면허발급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무관청은 해양경찰청이나 향후 2019년 7월 예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면허 주관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권리를 찾아와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요트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협회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무하며 관련 예산도 전무합니다. 이에 관하여 각 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요트스쿨을 상세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운영은 자체 수익사건은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레이저요트협회, J24협회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상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윈드서핑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수익 사업입니다. 현재 마리나와 연계한 수익프로그램에서 요트스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트선수출신이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군 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클럽활동이라는 형태로 개인이 운영하는 종목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회도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계위원회 업무를 하는 동안 능력 있는 선장이 없는 없으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협회의 변변히 대의조차 없고 자체 행사나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며 자체수익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트계의 원로라는 분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약간의 거짓 모함이었으며 그리고 사무처는 이에 부화뇌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떠올리며 과거의 과오

는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가능성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 흔히 쓰는 말로 We're all in the same boat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에 한 가족같이 뒀습니다. 이제 배는 베테랑 선장을 만났고 정상 항로를 찾았습니다. 이제 인계위원회에서의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요트와 강국을 향해나가는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내용을 검토하고 좋은 의견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I. 심의사항

1.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정

가. 주요내용

- 2019년도 제4차 이사회 (2019.4.11.개최) 의결
- 사업추가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개최, 보성군수배 전국요트대회 개최,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3회 파견) 및 1분기 종료사업 실제 집행금액 반영하여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정(안) 작성
- 2019년도 예산 수정(안) 요약

세 입			세 출	
관	항	금액	관	금액
자 체 ₩424,612,702	찬조금	302,662,200	국가대표강화훈련	1,442,562,359
	기금과실금	73,096,332	후보선수육성	196,465,460
	자체수입	48,854,170	청소년대표육성	182,651,500
국민체육 진흥기금 (대한체육회) ₩2,136,378,964	국가대표강화훈련	1,223,763,694	국제체육교류	23,644,990
	후보선수육성	191,119,260	학교체육활성화	152,100,000
	청소년대표육성	182,051,500	생활체육활성화	4,500,000
	국제체육교류	5,186,400	전국&국제대회개최	374,237,090
	학교체육활성화	152,000,000	국제전문인력사업	41,799,600
	국내종합대회지원	18,237,590	전문인력양성	15,200,000
	국제전문인력사업	41,799,600	국내회의개최	13,482,700
	체육지도자	1,200,000	인건비	205,478,799
	경기력향상비	172,000,000	운영비	77,021,183
	회원종목단체지원	149,020,920	2018년 미지급금	74,207,985
보조금 ₩242,360,000	대회지원금	242,360,000		
합 계		2,803,351,666	합 계	2,803,351,666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의장) 이 문제(대회운영)는 이사회 끝나고 전반적으로 대한요트협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시도요트협회와 대한요트협회의 관계는 어떻게 협력할 건가에 대한 다시 검토를 좀 할 문제입니다.
- (김총회) 협회장배 예산은 3천만원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

만원 정도 해서 우리 협회의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협회장배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총회) 유준상 회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임원님 그리고 각 시도 대의원 지도자 또 임원 모두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가지고 자비를 내고 지도자 세미나 발전 대한요트협회 발전 세미나를 한번 요청 드립니다.
- (조대용) PPT자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요트가 뭔지 그거를 항상 하 시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총회 이사님께서 세미나 말씀하시길래 참 잘 됐다. 이 때 부회장님이나 이사님들이 오셔서 요 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방법도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거를 좀 이렇게 요트인중에 하시던지 누가 좀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거 같아 요. 저는 그래서 그 자료준비를 4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 (의장) 국가대표 훈련지원비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체육회에서 천만 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4,300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재정 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2종목으로 집중해서 가는거고 이렇게 해서 융 통성 있게 하도록 하고요...

다. 논의 결론 : 수정 의결

- 협회장배 개최비, 국가대표 훈련비 등 지적된 사항 수정

2. 일부 전문위원회 규정 개정

가. 주요내용

- 심판위원회 · 대회위원회 · 기술위원회 규정 중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이 임기 4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
- 선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기준 마련: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 국가대 표선수 또는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 정 참고)
- 대한체육회 문체부 감사 지적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전문위원회 설치

가. 주요내용

-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추가설치(안): 국제위원회, 마리나&요트산업위원회, 외양세일링위원회

나.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4.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동의

가. 주요내용

- 각종위원회규정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1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은 이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위원장 위촉 동의(안)

#	위원회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1	대회위원회	김충희	1966.11.16.	· 전라북도요트협회 전무이사 · 부안변산마리나 대표 · 새만금컵국제요트대회조직위원장
2	경기력향상위원회	임진영	1972.04.07.	· 여수시요트협회 전무이사 · 무선중학교 운동부지도자 ·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8
3	선수위원회	박길철	1963.04.19.	· 전남요트협회 전무이사 · 전)대한요트협회 경기력향상위원장 · 아시안게임 금메달 1986, 1990
4	심판위원회	정승철	1956.03.26.	· 국제심판/국제임파이어 · 2017-2020경기규칙번역위원장 ·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수료
5	기술위원회	유재훈	1964.03.21.	· 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WS 외양경기특별규정 번역 · 2017-2020경기규칙번역위원
6	유소년육성위원회	김상석	1972.03.12.	· 국가대표후보팀 감독 (2013~) · 전)한국오피티미스트요트협회 전무 · 전)국가대표 오피티미스트 코치
7	홍보위원회	송영언	1954.07.06.	· 前스포츠동아 대표이사 사장 · 前동아프린테크 대표이사 사장 · 前동아일보 기자
8	스포츠공정위원회	장인태	1956.01.04.	· 법무법인 링컨로펌 대표변호사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회 위원
9	생활체육위원회	-		
10	국제대회유치위원회	유준상		· 대한요트협회장
11	국제위원회	-		
12	마리나&요트산업위원회	주봉노		· 대한요트협회 이사 · 위니스건설 회장
13	외양세일링위원회	정채호		· 코리아요트스쿨 교장 · 코리아나호 선장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의장) 국제대회유치위원장은 제가 말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주봉노 이사님의 본인의 승낙을 안 받았는데 마리나 요트산업 위원회로 하고, 외양세일링위원회는 정채호 전남요트협회장을 역임했고 범선협회 회장을 하신 정채호 회장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임명을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동의 받지 않은 생활체육이라던지 한 두 분은 저에게 위임을 해줌으로써 여기에 동의를 받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전체) 예.
- (업용대)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기술위원회, 유소년육성위원회 이견 엘리트체육관련입니다. 그 선수들하고 직접 연관이되는. 여기서 이 위원장들은 1년, 2년 동안 하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위원장께서는 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과를 보고서를 보고 해야 돼요.
- (의장) 지금 위원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고 결정을 하고 위원은 7명 이내 7명이상을 13명으로서 규정에 따라서 정해서 제가 위원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걸 추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겁니다.
- (의장) 업용대 이사님이 얘기한 대한체육회에 규정이 된 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추후에 보고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논의 결론

- 원안을 의결하며 추가로 국제대회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유준상 회장, 마리아&요트산업위원회는 주봉노 위원장, 외양세일링위원회는 정채호 위원장을 위촉을 동의함.
- 생활체육위원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은 회장에게 위임.

5.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등록선수 활동 승인

가. 주요내용

- 전국규모연맹체규정 제18조(임원) 제4항에 따라 연맹체의 임원은 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레이저요트협회-19/04(2019.04.18.)「한국레이저요트협회 임원의 전문등록선수활동 승인요청」공문으로 한국레이저협회 채희상 회장이 등록전문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외 신청함.
- 승인심사 대상자

번호	대상자 정보	주 활동 클래스	경기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한국레이저요트협회 • 직위: 회장 • 성명: 채희상 • 생년월일: 1964.2.31. 	레이저	2018 전국해양스포츠제전 10위 2017 대한요트협회장배 9위 2017 전국해양스포츠제전 10위 2016 대한요트협회장배 10위 2016 전국체전 14위

나. 참석자 주요발언

- (김총회) 대회를 참가를 하되 국가대표 자격은 가질 수 없도록 하자.

다. 논의 결론: **조건부 승인** (조건: 랭킹점수로 국가대표선수 자격을 갖추더라도 선발되지 않음.)

6. 윈드서핑·카이트보딩 전국규모연맹체 설치 검토

가. 주요내용

- 대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제명
(근거: 2018임시대의원총회(2018.12.05.개최), 통보일자: 2018.12.24.)
- 2018년도 자체 감사보고서 내용

지난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대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이 제명된 후속 조치로 전국단위 윈드서핑단체와 카이트 종목단체를 대한요트협회 전국규모연맹체로 가맹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공고하여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과 해당 세부종목의 불편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조대용) 기존에 윈드서핑하고 카이트보딩은 제명이 된 것은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윈드서핑협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행정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이번 재판 결과를 보고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총회) 대한윈드서핑협회는 우리 대한요트협회에 대한윈드서핑협회의 자격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요트협회는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고 대한요트협회하고는 별개로 대한윈드서핑협회를 가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의원에서 퇴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한국윈드서핑협회와 카이트보딩협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한국윈드서핑협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도죠.
- (의장) 우리가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입을 협회 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우리가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회장을 한번 만날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한국윈드서핑이라는 용어도 쓰고 제대로 조직을 해서 들어와라 그걸 권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우리가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 요트협회는 다른 윈드서핑의 동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직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 (엄용대) 그러니까 이게 윈드서핑 쪽은 제가 잘 압니다. 단체도 국제윈드서핑에 따로 있고 세일링연맹의 다 클래스 협회입니다. 윈드서핑도

클래스 협회고. 월드세일링연맹에 대한요트협회가 있고 그 안에 워프로협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클래스 협회인데 이 친구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의장) 그렇게 시간을 뒤로 미룰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해서 빨리 식구들이 더 많은 요트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협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배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나보려고 해요. 제가 회장이 새로 되었으니까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받아주면 다행이고 안 받아주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직을 만들어서 온다면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 (김총회) 두 개를 분리하는 겁니다.
- (임진영) 올림픽도 종목이 두 개로 나뉘져 있습니다.
- (의장) 윈드서핑하고 카이트협회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두 가지 것을 해 오면 우리협회로서는 오늘 이사회 결의로서 받아드린다는 걸로 결의하겠습니다. 어어 정관 제7조 9항 2호에 보면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에 따라 최종 설치 또는 가입은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다음 총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다. 논의 결론 : 윈드서핑과 카이트보딩을 각각 홈페이지에 가입 신청 공고 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함.

IV. 기타사항

1. 부회장 선임 동의

가. 주요내용

- (의장) 인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계위원회 활동은 마감이 되었지만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강수림 성심범무법인 대표 변호사님,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주봉노 위니스건설 회장, 김총회 전북요트협회 전무이사 네 분을 부회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회장이라는 것도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4분이 부회장이라는 걸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 (전체) 네.

2. 인사위원회 구성

가. 주요내용

- (의장) 주봉노 부회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하고 최고봉 이사와 전 감사를 했던 김우현 감사를 우선 3명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추가에 위원은 저에게 위임 해주시면 위원장과 상의해서 인사위원장과 상의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 (전체) 네.

(의장의 폐회선언: 19시 00분)